

보 도 설 명 자 료

(19. 12. 11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”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것이 아니라,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임
(한국경제 등 12.1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- ◇ “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”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것이 아니라,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임
- ◇ 향후 6개월간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여부·시기·규모(예산) 등에 대한 상세 분석이 진행될 예정
- ◇ 12월 11일 한국경제 <구미전자·포항 철강 기술개발 4000억대 국책사업으로 추진> 등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1. 기사 내용

- “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”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며,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의 마지막 단계인 예산조정심의를 남겨두었음

2.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산업부에서 추진 중인 “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”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한 것이 아니라,
 -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의 선정을 위한 과기정통부 사전절차를(기술성 평가) 통과한 것임
- 동 사업은 향후 6개월간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·시기·규모(예산) 등에 대한 상세 분석이 진행될 예정으로,
 -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예산조정 심의만을 남겨놓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름

※ 문의: 철강세라믹과 김현철 과장/강호건 사무관(044-203-4297)